www.neargov.org

NEAR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2012

ANNUAL REPORT

2012년 연차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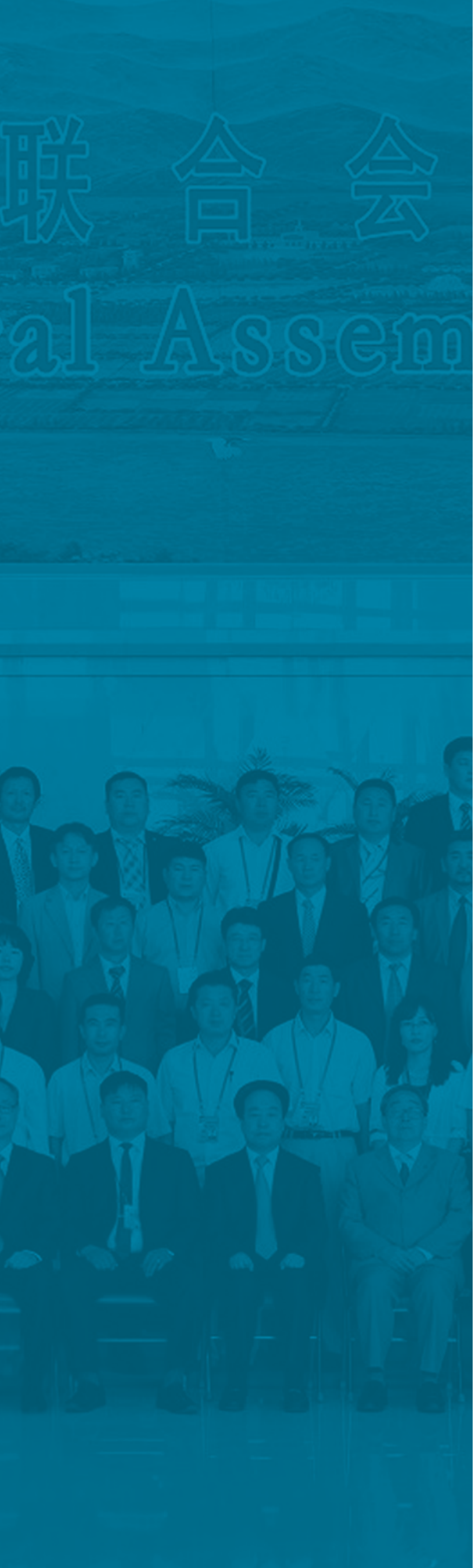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Annual Report 2012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동북아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들이 호혜와 평등의 정신을 바탕으로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상호 이해에 입각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여 동북아지역 전체의 공동 발전을 지향함과 동시에 세계 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결성되었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북한, 러시아 6개국의 71개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해 있으며 4억 4,600만 명의 인구를 포용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 최대의 지방자치단체간의 국제협력기구입니다.

亚 地 区 地 方 政 府
The 9th NEAR Gener



Contents

메시지 | 06

제9차 총회 | 09

1. 사전 활동
2. 총 회

분과위원회 활동 | 17

1. 분과위원회
2. 2012 분과위원회 개최
3. 2013 분과위원회 활동 계획

실무자 워크숍 | 23

1. 특별강연
2. 수범사례
3. 청년 해외인턴 프로그램
4. 전라남도 「2012 여수세계박람회」 탐방

연합 기반 강화 | 29

1. 新 비전 조사 · 연구 용역
2. 웹 사이트 재구축
3. NEAR News 발간 확대
4. 주요인사 방문

2012 행사일정 | 33

대외협력 네트워킹 | 37

사무국 | 41

부록 | 45

1. NEAR 회원
2. NEAR 옵저버
3. NEAR 협력 기구 회원

메시지

Message

Message

2012년은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연합(NEAR) 창설 16주년이 되는 해이자 제9차 총회가 개최된 해였습니다. 연합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4년 임기제로 운영되어 오던 상설사무국의 운영을 대한민국 경상북도에 장기적으로 존치하여 운영하게 됨으로써 지속성과 일관성 있는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연차보고서(NEAR Annual Report)를 새로이 발간하게 되어 체계적인 연합의 활동 상황을 보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0년 초 그리스 재정위기를 시발로 3년째 지속된 유럽발 재정위기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확산되면서 동북아지역의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9월을 전후하여 심화된 한국 · 중국 · 일본 간의 영토분쟁과 역사인식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가간의 갈등이, 지속적인 교류협력 관계를 구축해 온 연합의 회원 지방정부간의 활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침으로써 많은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 중국 수교 20주년, 중국 · 일본 수교 40주년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여러 지역에서 개최되었으나 교류협력에 타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2012년에는 연합의 회원지역인 북한, 러시아, 몽골, 중국, 일본, 한국에서 국가의 리더십이 바뀌는 정치적 전환기였으며, 이에 따른 변화가 2013년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7월에는 연합의 제9차 총회가 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 인민정부 주도로 성대히 개최된 바 있는데, 왕정웨이 주석의 2년 의장 임기 동안 연합의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리더십에 감사드리며, 차기 의장 단체이자 2014년 제10차 총회 개최지로는 대한민국의 전라남도가 결정되었습니다.

연합의 국제적 협력 관계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유럽지방정부연합회(AER : Assembly of European Regions)와 협력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서 2011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 'NEAR 국제포럼'에 AER 의장 대표단이 참석하여 동북아시아 – 유럽 지방정부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였으며, 2012년 프랑스에서 개최된 AER 총회에 NEAR 사무총장 대표단이 참석하고 양 기구간의 협력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청년실업 해소와 같은 공동 관심사에 대해 상호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실질적인 협력 등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스위스 제네바 소재 지방정부간의 국제협력기구인 기후변화 지방정부행동기구(R-20 : Regions of Climate Action)와 파트너 회원 기관으로서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R-20은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Climate Change)에 대응함에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국가간의 협정체결 추진도 중요하지만, 협정이 체결되어도

정책의 집행이나 대응의 주체는 지방정부가 중심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주안을 두고, 실질적인 대응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협력기구로서 세계 각 지역의 지방정부와 NGO, 연관 기업,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연합의 홍보 역량을 크게 확충하였습니다. 기존의 NEAR 웹사이트를 독립서버 기반으로 완전히 재구축하여 소통과 정보교류 및 홍보 역량을 크게 개선하였으며, 연합뉴스(NEAR News)의 발간 부수를 2,000부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홍보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가장 실질적인 연합의 협력 창구인 분과위원회 활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11년에는 처음으로 분과위원회 위원장급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공통의 지향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분과위원회 운영 매뉴얼도 제작한 바 있습니다. 2012년에는 방재분과위원회를 비롯한 5개 분과위원회가 각 주관단체(coordinator)별로 개최되었으며 주제 선정과 실질적인 성과 등에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연합 창설 이래 도입을 잠정 유보해 온 회비제에 관하여, 연합의 장기적인 발전 측면에서 도입 목적, 시기, 방법 등에 대해 제7 · 8 · 9차 총회를 거치면서 도입에 관한 다양한 협의를 가졌으며 점차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성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중장기적 과제로서, 창설이래 회원지방정부간의 교류 확대 · 심화에 중점을 두어온 연합을 '21세기 : 아시아의 세기' 라는 시대적 여건 변화에 부응하고, 2020년을 즈음한 창설 25주년을 목표로 하는 연합의 비전과 미션을 재조명하고 중장기적 발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외부 전문연구기관의 조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회원정부와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를 공유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날의 국제관계는 종래 국가간의 관계 일변도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협력이 결합된 다층적 구조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으며, 지방분권화의 강화를 통해 중앙과 지방정부간은 보완적(subsidiarity)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변화와 더불어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이며 그 중심에 동북아가 있고, 동북아의 중심에 연합(NEAR)이 있는 만큼 시대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2012. 12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 **김 재 효**

2012년도 한 해 동안 연합회의 주요 활동 상황과 성과를 담은 「2012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연차보고서」를 처음으로 발간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제9차 총회와 방재 · 교육문화 · 광물개발 · 에너지기후변화 · 변경협력 분과위원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주신 회원 주관단체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북아는 세계인구의 4분의 1이 살고 있고, 세계 국가 GDP의 24%와 세계 무역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거대 경제권으로 성장함에 따라 이제는 동북아가 세계경제의 중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동북아는 석탄, 천연 가스, 석유를 비롯한 광물과 산림자원이 풍부하고, 식량생산의 최적지로 평가 받고 있어 인류가 앞으로 직면할 식량과 에너지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동북아의 비중과 역할이 커짐에 따라 지역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유사성이 많은 동북아지역 자치단체간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며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 1996년 출범한 우리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지방정부간 유일한 공동협력체로서 회원단체들이 보유한 지혜와 경험을 교류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16년간 경제, 관광, 문화, 농수산,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는 높이 평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회원 단체 사이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져 각 지방정부가 쌓은 지식과 경험들이 자기 지역과 국가의 발전은 물론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식량과 에너지 부족문제 등과 같은 인류 공동의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 동북아를 넘어 세계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2012 연차보고서 발간을 기쁘게 생각하며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회원단체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012. 12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의장 / 대한민국 전라남도지사 **박 준 영**